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28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6월 9일 2025년 7월 3일 목요일

광주 AI 중심도시 탄력 받나

AI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0억 추경 반영
과기부에 AI 산업 현황도 전달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광주 AI 중심도시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안에 '광주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관련 예산이 담겨 AI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관련기사 3면〉

지난달 이 대통령이 광주를 찾아 '호남의 마음을 듣는다'를 주제로 진행한 타운홀미팅에서 지적한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 관련 현황도 정부에 보고가 됐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아 3일 열리는 첫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깜짝 메세지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소개한다는 점에서 AI·신재생에너지 등 광주·전남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광주시가 이 대통령의 광주 타운홀미팅 다음날인 지난달 26일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광주 AI 산업 현황에 관한 내용을 전달했다.

이번 보고는 타운홀미팅에서 광주 AI 산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이 대통령에게 정확한 현황을 보고하고 광주가 AI 중심도시 최적지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설명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광주를 찾은 이 대통령은 호남발전을 위한 제언을 듣는 자리에서 광주의 AI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광주 인공지능 사업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진짜 되겠냐", "그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다.

2일 광주시 북구 첨단3지구 공지능(AI)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 전경. 집적단지 내에는 '국가AI데이터센터'(오른쪽)와 '드라이빙 시뮬레이터'가 조성돼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현장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단장은 해명했지만, 광주시는 이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정확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과기부에 운영 현황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이날 국토교통위원회는 'AI 모빌리티 국가시범 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0억원을 올해 2회 추경안에 반영해 국회 예산특별위원회에 올렸다는 점도 지역민들의 기대를 키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광주지역 공약이 처음으로 정부 예산 안에 담겼다는 점에서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광주시에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실증, AI 기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의 첫 발인 연구용역비다. 광주 인근에 미래산업 핵심이자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인 AI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산안에 광주시를 지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예산을 토대로 광주가 AI 중심도시로 거듭나 지역 균형발전뿐 아니라 정부의 소버린(주권) AI 정책의 선두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일까지 진행되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광주 AI모빌리티 국가시범 도시 조성 연구용역비가 최종 확정되면 정부 추경안에 담겨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국 인구다양성 지수 5년 새 7.79% 상승

전남, 외국 출신 증가 17.5%↑

한국의 인구다양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 인구다양성 지수 상승 폭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인구다양성 지수는 2018년 대비 7.79%p 증가한 0.056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인천의 인구 다양성 지수가 0.0592에서 0.0722로 21.96% 급등했으며, 대전(17.67%), 전남(17.5%), 전북(16.94%), 강원(13.65%), 대구(13.64%) 등의 순으로 상승 폭이 10%를 넘었다.

인구 다양성 지수는 한 지역이나 집단을 구성하는 인구가 '완전 동질(0)~완전 이질(1)'의 연속선상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 지수는 종교·인종·문화가 뒤섞인 지역 공간에서의 인구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쓰인다.

전남의 지수 상승은 특히 외국 출신 인구와 이주배경 영유아(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의 급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대부분 아시아 국가 출신으로, 국적별로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이었다.

광주의 경우 광산구가 2018년부터 이미 인구다양성이 높았고, 2022년에는 다양성이 심화되면서 범위가 확장됐다. 광산구는 산업단지(하남·진곡 등)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가정 등 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이며 전통적으로 고려인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연구진은 "지역 간 인구다양성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과 중소도시에서도 다문화·이주배경 인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통합과 포용을 위한 맞춤형 보육·교육·돌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농촌 보건소 "마을 시니어 의사 구합니다" ▶6면
굿모닝 예향 -자연과 함께·미술관 투어 ▶16·17면
KIA 투수 김건국 '완벽' 대신 '닥공' ▶18면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2032년까지 124만㎡ 규모

총 사업비 2633억원 투입

산업용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전남도가 국가산업단지 한 곳을 추가로 확보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원에 123만9722㎡(약 38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263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에너지산업과 신소재 나노융합소재산업, 친환경 IT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해 에너지 관련 국가 기반산업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사업을 맡아 오는 2032년 조성을 목표로 한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이 완공될 경우 생산유발효과 3164억원, 고용유발효과 1515명 등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나주 에너지 산단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국가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 2018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국가산단 지정은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겪었으나 정부와 전남도, 나주시, 전남개발공사, 사업시행자 등이 노력해 국가산단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개교와 한국전력공사, 나주 혁신 일반산업 단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는 점이 국가산단 지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가 2026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 승인·고시는 전남도와 관계기관이 오랜 시간 함께 노력해 얻은 값진 성과"라며 "이번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지정은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산업의 국가 전략적 거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